



## 언론발표

2020년 1월 16일

### NSW 토지 신규감정평가

NSW 감정평가원장 대행은 NSW 전역의 모든 토지에 대한 지가 산정을 완료했습니다. 해당 지가는 2019년 7월 1일 기준 토지 가격 감정가입니다.

감정평가 통보서는 지주들에게 2020년 1월 15일부터 4월 말까지 점진적으로 발부됩니다.

“저는 이 시점에 신규 감정평가서를 발행하게 되면 산불 피해를 본 일부 부동산 소유주들이 심적으로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산불 피해지역의 감정평가서 발부는 사월까지 연기하고자 합니다”라고 폴 쳐들리 감정평가원장 대행은 말했습니다.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재산 피해를 보거나 주택을 잃었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비극적인 이번 산불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초토화된 상태로 남게 될 지역에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가는 계약직 독립 감정평가사들이 주 전역의 57,000 여 주택매매 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19년 7월 1일 기준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다음 NSW 부동산청 소속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내용의 품질 확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전체적으로 NSW 지가는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12개월간 5.4% 하락하여 1조 7300억 불 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드니와 일부 해안 지역의 주거용 토지 가격이 하락했으며 일부 지방은 미미하거나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NSW 전역에서 상업, 공업, 시골 지역 지가는 상승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골 지역의 지가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였습니다. 지가 상승의 특징으로는 가축 수요 증대 및 원자재 가격, 양호한 도로 기반시설, 내륙 철도 사업, 시골지역 매물 부족이 두드러졌습니다.

쳐들리 대행은 토지 감정평가는 매해 실시하는데 신규 감정평가는 2020년 7월 1일에 실시하여 산불피해 지역의 피해상황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가는 토지세 목적으로 NSW 정부수입관리청(Revenue NSW)에, 지방세 산정 목적으로 지역 카운슬에 제공됩니다.

“현 단계에서 산불로 인한 부동산 가치 여파를 가능하기는 이르며 불행하게도 산불 다발 기간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라고 쳐들리 대행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산불 피해지역의 토지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보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더 아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valuergeneral.nsw.gov.au](http://valuergeneral.nsw.gov.au) 를 방문하시거나 1800 110 038 로 전화하시면 됩니다.